

ABARES 2017 농업전망: 축산부문 *

윤 영 석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1.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전망

1.1. 가격 전망

2016/17년 호주의 소 산지경매가격(saleyard price)¹⁾은 kg당 540센트로 2015/16년 대비 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평년 대비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도축용 소 공급이 제한된 결과이다.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하면, 2017/18년에는 사육 규모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입식용 소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호주의 주요 쇠고기 수출시장의 쇠고기 가격 하락으로 암소와 비육우의 생산자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2017/18년 소 산지경매가격은 2016/17년과 동일한 kg당 540센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21/22년 소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2016/17년 달러 기준으로 평가한 실질가격은 kg당 465센트로 하락할 전망이다. 동 기간 동안 도축용 소 공급은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 반영되어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jnu7213@gmail.com). 본고는 호주 농업·수산업·임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인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의 2017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됨.

1) 산지경매가격은 지역별로 개설된 경매시장에서 생축이 거래되는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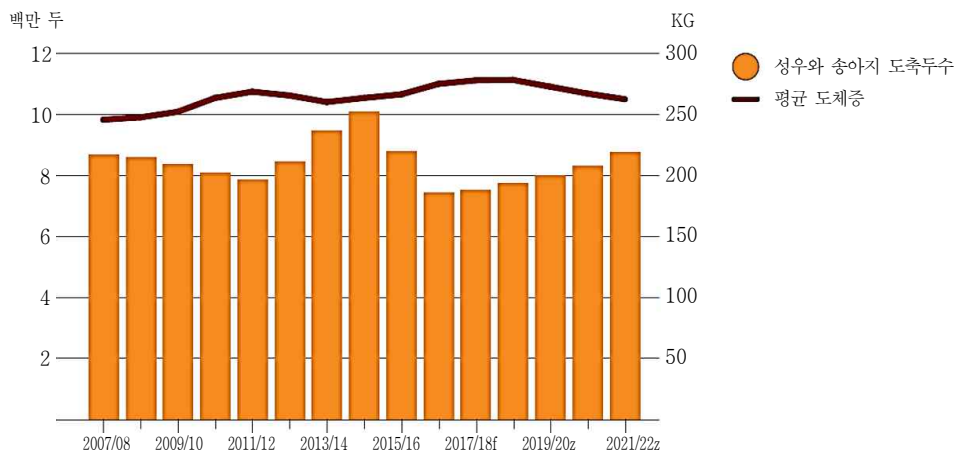
1.2. 생산 전망

2016/17년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도체중(carcase weight) 기준 200만 톤으로 2015/16년 230만 톤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쇠고기 생산 전망 감소분은 도축두수 감소(750만 마리, 전년대비 15% 감소)가 도체중 증가(전년대비 3% 증가)로 인해 일정 부분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하면, 2017/18년 성우 및 송아지의 도축두수는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략 750만 마리로 전망된다. 한편, 암소와 암송아지 도축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평균도체중(average slaughter weight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18년 호주의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소폭 증가한 21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1/22년에는 도축두수가 향후 5년 간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2016/17년 전망치보다 17% 증가한 880만 두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기간 동안 평균도체중은 암소와 암송아지 출하물량 증가로 감소되어 도축 증가분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산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2017/18년 이후 연간 대략 3%씩 증가하여 2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호주의 성우와 송아지 평균 도체중 변화(2007/08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1.3. 수출 전망

1.3.1.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

2016/17년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액은 71억 달러로 2015/16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출량도 선적중량(shipped weight) 기준 98.5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도축 및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출 공급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17년 대(對) 미 수출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일본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26%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쇠고기 생산 확대는 호주산 쇠고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고조로 인해 수출 수익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어, 평균 수출 단가를 동 기간 동안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출액은 약 71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호주의 쇠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7/08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가. 일본

2016/17년 호주의 對 일본 쇠고기 수출량은 2015/16년 대비 3% 감소한 26만 톤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쇠고기는 일본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선·냉장 쇠고기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2013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연령 제한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2016/17년 상반기에 일본의 신선·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전체 쇠고기 수입의 47%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일본의 쇠고기 수입은 자국의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호주산 쇠고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 심화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18년 일본에 대한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6/17년 대비 2% 감소한 25.5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 물량은 2021/22년까지 약 24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

2016/17년 호주의 對 미 쇠고기 수출량은 선적중량 기준 19.5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18년에는 추가적으로 2.6% 감소하여 1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수입 가공 쇠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대(對) 미국 쇠고기 수출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1~22년에 이르러 21만 톤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수요는 미국 내의 쇠고기 가공품의 공급 증가로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망 기간 내 호주산 쇠고기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은 브라질²⁾을 비롯한 다른 수출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하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안국

2016/17년 호주의 對 한국 쇠고기 수출량은 2015/16년 대비 4.5% 증가한 19.8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의 소득 증대로 인한 수입 쇠고기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동 기간 한국의 쇠고기 수입은 전년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7/18년에는 20.6만 톤, 2021/22년에는 23.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한국의 소득 호조 전망에 따른 쇠고기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한국 내 쇠고기 생산의 지속적 감소가 수입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중국

2016/17년 호주의 對 중국 쇠고기 수출량은 9.9만 톤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6년 7월 브라질 제품의 질병과 관련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철회된 이후 미국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2016년 9월에 재개되었음.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규모는 수입초기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값싼 평균 수입단가로 인해 성장세가 예상됨.

이는 호주의 수출 가능한 쇠고기 물량이 제한적이고 남아메리카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과 우루과이와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2016/17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중 브라질산과 우루과이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8% 증가하였다. 동 기간 호주산 쇠고기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5.40달러로 브라질산 쇠고기의 평균 수입단가인 4.45달러/kg를 21% 상회하였으며, 우루과이산(3.24달러/kg)보다는 6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쇠고기 수출 공급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18년 중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은 10만 톤으로 증가하고 2021/22년에는 대략 12.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기간 호주산 쇠고기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남미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2. 생우 수출

2016/17년 호주산 비육용 소와 도축용 소의 수출은 91.5만 마리로 2015/16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기간 동안 마리 당 평균 수출단가는 1,230달러로 전년 대비 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6/17년 호주산 비육용 소와 도축용 소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2% 하락한 1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생우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수입하여 호주산 소의 최대 수입 시장으로서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호주의 생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18년에는 95만 마리, 2021/22년에는 105만 마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높은 수준의 소득 증대로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입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호주산 생우 수출의 주요 시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주산 생우 수출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과 중국과 같은 새로운 대체 시장으로의 생우 수출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수입규제 하에 호주 남부산 생우만을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생우 수입 원천인 호주 북부산과는 직접적으로 경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호주의 생우 수출량 및 평균 수출단가(2008/09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표 1. 쇠고기와 송아지에 대한 전망

구분	단위	2014/15	2015/16s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산지가격 a	호주 센트/kg								
-명목	호주 센트/kg	364	505	540	540	536	531	527	523
-실질 b	백만 두	375	513	540	530	513	496	480	465
사육두수 cd	백만 두	27	26	27	27	28	28	29.0	29
-육우 c	천두	25	23	24.0	25	25	26	26	27
도축두수	킬로톤	10,103	8,796	7,450	7,525	7,750	8,000	8,300	8,750
생산 e	kg	2,662	2,344	2,033	2,091	2,156	2,181	2,216	2,296
1인당소비	킬로톤	28	25	23	25	26	26	26	25
수출량 g	킬로톤	1,376	1,196	985	1,000	1,010	1,025	1,045	1,095
-중국	킬로톤	129	129	99	100	101	108	115	126
-일본	킬로톤	294	265	260	255	250	248	243	240
-한국	킬로톤	165	189	198	206	213	220	227	232
-미국	킬로톤	470	336	195	190	195	200	205	210
수출액									
-명목	호주 백만 달러	9,040	8,495	7,100	7,195	7,295	7,435	7,610	8,005
-실질 b	호주 백만 달러	9,298	8,619	7,100	7,061	6,984	6,945	6,935	7,117
생우 수출	천두	1,295	1,114	915	950	1,015	1,025	1,033	1,050
-명목	호주 백만 달러	1,163	1,280	1,124	1,167	1,237	1,239	1,239	1,249
-실질 b	호주 백만 달러	1,197	1,299	1,124	1,145	1,184	1,157	1,129	1,111

주: a 지육증량. b 2016/17년 호주달러 기준. c 6월 30일 기준. d 젖소 포함. e 도체증량. f ABARES 전망치. g 선적증량(냉장, 냉동육 포함). s ABARES 추정치(estimate). z ABARES 추정치(projection).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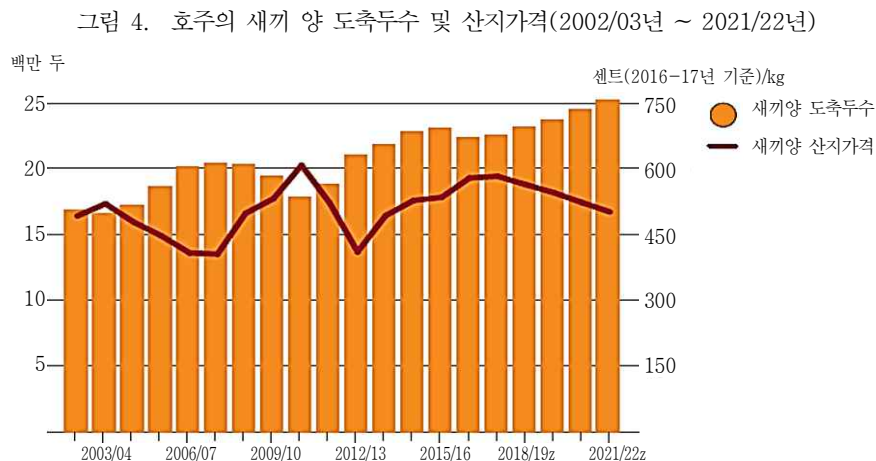
2. 양고기와 양모 전망

2.1. 가격 전망

2.1.1. 새끼 양 가격

2016/17년 호주의 새끼 양 가격은 kg당 평균 585센트로 2015/16년 대비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 감소 및 강력한 재입식 수요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 새끼 양 가격은 전년대비 3% 올라 평균 60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도축이 소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하면, 지속적인 양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한 농가의 재입식 수요 유지는 새끼양의 산지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동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수요 증가와 호주 달러 약세도 새끼 양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새끼 양 가격은 2017/18년 이후로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겠지만, 새끼 양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2018/19년을 기점으로 차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2년에는 kg당 507센트(2016/17년 달러 기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1.2. 양 가격

2016/17년 호주의 양 가격은 kg당 380센트로 2015/16년 대비 20%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전망은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재입식 수요와 가임 암양 보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18년 양 가격은 전년대비 4% 상승한 kg당 395센트를 기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임 양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을 가정할 때, 출하두수 감소 경향과 확고한 재입식 수요를 근거로 한다.

2017/18년 이후 양 가격은 사육두수와 출하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22년에는 kg당 329센트(2016/17년 달러 기준)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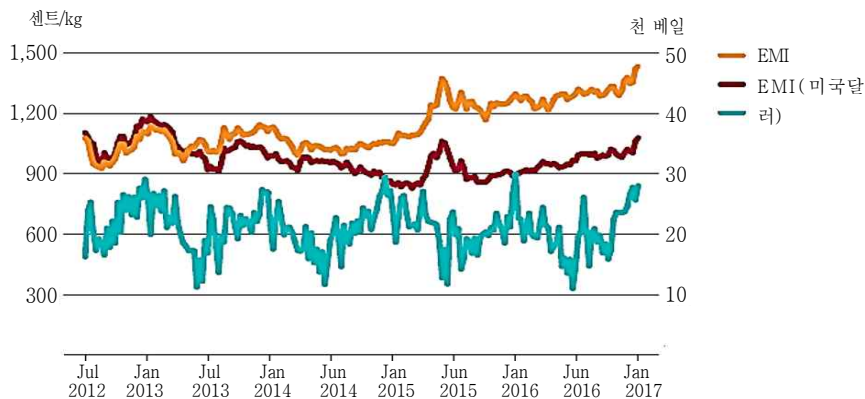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1.3. 양모 가격 전망

2016/17년 호주의 EMI(Eastern Market Indicator) 양모 가격은 kg당 1,360센트로 2015/16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제한된 공급에 대응한 고급 모직물에 대한 가공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에는 평년수준 보다 우수한 계절조건으로 양 영양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양모 섬유가 두껍고 뻗뻗하며 평년보다 약간 더 넓은 양모가 생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질 좋은 양모 비율이 경미하게 감소하여 평균적인 질의 양모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2017/18년 양모 가격은 수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6% 오른 kg당 64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같은 주요 양모 소비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의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여 호주산 양모, 특히 고급 양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기적으로 2021/22년 EMI는 kg당 1,262센트 (2016/17년 달러 기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호주의 주간 EDM(Eastern Market Indicator) 양모가격(2012년 7월 ~ 2017년 1월)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2. 생산 전망

2.2.1. 새끼 양고기(lamb) 생산

2016/17년 새끼 양 도축두수는 양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목축업자들의 노력으로 2015/16년 대비 3.2% 감소한 2,2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끼 양고기 생산량은 평균 도체중 증가가 도축 감소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전년대비 2.5% 감소한 50.3만 톤으로 예상된다. 2017/18년은 계절조건이 평년수준으로 유지되고 사육 규모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가정할 때, 전년대비 1% 증가한 2,260만 마리의 새끼 양이 도축되어 50.7만 톤의 새끼 양고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새끼 양 도축두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1/22년에 2,530만 마리에 이르고, 이에 따라 새끼 양고기 생산량은 56.9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2.2. 양고기(mutton) 생산

2016/17년 1년 이상 된 양 도축 두수는 650만 마리로 2015/16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번식을 위해 암양을 유지하고 도축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양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15.8만 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적인 양 사육 규모 회복 노력으로 도축두수는 2017/18년까지 650만 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양고기 생산량은 도체중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15.6만 톤으로 미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양 도축은 생산자가 가임 암양 보유를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도축두수는 차츰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71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양고기 생산량은 17.1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3. 양모 생산

2016/17년 호주의 양모 생산량은 34.1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반기에 계절조건이 평년수준 보다 크게 개선되어 양 사육두수와 양털의 평균무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림 7. 호주의 양모 생산량과 가격(1997/98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017/18년 양모 생산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35.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양모 가격으로 주로 양모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거세 숫양 사육두수의 대폭적인 증가가 생산량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18년에는 평년수준의 계절조건으로 양털의 평균무게가 전년대비 0.5% 감소하여 양모 생산량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22년 양모생산량은 39.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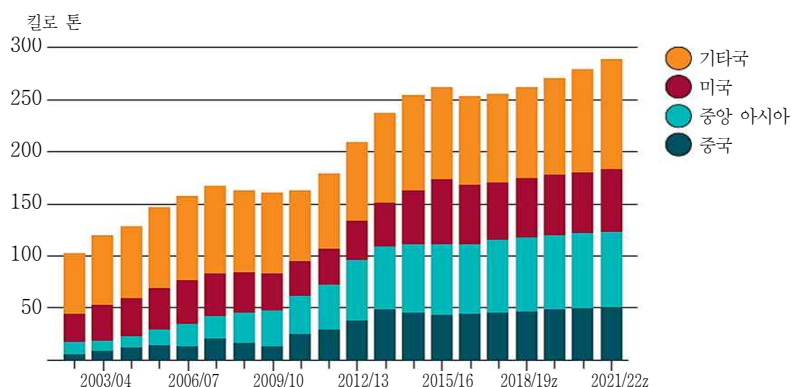
2.3. 수출 전망

2.3.1. 새끼 양고기(lamb) 수출

2016/17년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새끼 양 도축 및 생산량 감소로 2015/16년 대비 3% 줄어든 25.3톤(선적중량 기준)으로 전망된다.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고기 수출 실적은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한 18억 달러로 예상된다. 2017/18년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양고기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25.5만 톤이 예상되며, 수출액은 18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새끼 양 수출은 새끼 양 도축과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촉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는 28.9만 톤의 새끼 양고기를 수출하여 18억 달러(2016/17년 달러 기준) 상당의 수출액(export proceeds)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호주의 새끼 양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가. 미국

미국은 물량 및 금액 모든 측면에서 호주의 최대 새끼 양고기 수출시장이다. 미국에 대한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2010/11년 이후 5년 동안 급격히 성장하여 2015/16년 6.3만 톤을 기록하였다. 2016/17년 상반기 미국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미국 경제의 약세와 수출 공급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12% 하락한 2.7만 톤을 기록하였다. 하반기 수출은 미약하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2016/17년 연간 수출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한 5.8만 톤으로 예상되며, 수출액은 전년대비 6% 하락한 5억 8,000만 달러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1/22년에는 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호주 자국 내의 수출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 중동

중동(서남아시아)은 호주의 주요 양고기 수출시장으로 성장해왔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득 증가, 중산층 확대 및 이민자 증가로 양고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17년 호주의 對 중동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이 지역 일부 국가의 소득 감소와 수출 공급 물량 감소로 2015/16년 대비 2% 감소한 2.6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18년 양고기 수출량은 수출 수요와 수출 공급 물량 증가로 전년대비 5% 증가한 6.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으로 중동으로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이 지역 경제의 성장세와 수출 공급 물량 증가를 반영하여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22년에는 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국

중국은 인구 증가, 소득 및 소비자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호주의 주요 양고기 수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중국시장 내에서 호주산 양고기는 시장수요가 확대되어 뉴질랜드 산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2016/17년 4.4만 톤(전년대비 3% 상승)에서 2017/18년에는 4.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결과는 세계 최대의 새끼 양고기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수출 공급 물량 감소³⁾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최근 뉴질랜드는 건조기후가 지속되어 양양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끼 양고기 수출량도 감소하였음.

중기적으로 중국의 양고기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호주의 새끼 양고기 수출량은 2021/22년에 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뉴질랜드와의 경쟁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양고기 수출국이자 세계 양고기 시장에서 호주의 경쟁국이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비교하여 주요 시장인 중국과 EU시장에 대한 뚜렷한 장점이 있고 환율 조건 또한 유리하다.

EU시장에서 두 나라 간 양고기 수출 조건을 비교해 보면, 무관세 쿼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뉴질랜드는 EU에서 228,254톤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적용받고 있지만, 호주는 19,186톤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중국 시장에서는 뉴질랜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양고기 수출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산은 중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2023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2017년 현재는 8~15.3%의 관세를 부여 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주요 양고기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조건 상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양고기 생산과 수출 실적은 지난 10년 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Beef + Lamb New Zealand의 전망에 따르면, 2016/17년 뉴질랜드의 총 새끼 양 도축두수는 18.35만 마리로 2015/16년 대비 2.7%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새끼 양고기 생산량과 수출량은 북섬에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남섬을 중심으로 양 사육에서 젓소 사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에 대한 뉴질랜드의 양고기 수출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호주산 양고기 수출은 EU의 수입쿼터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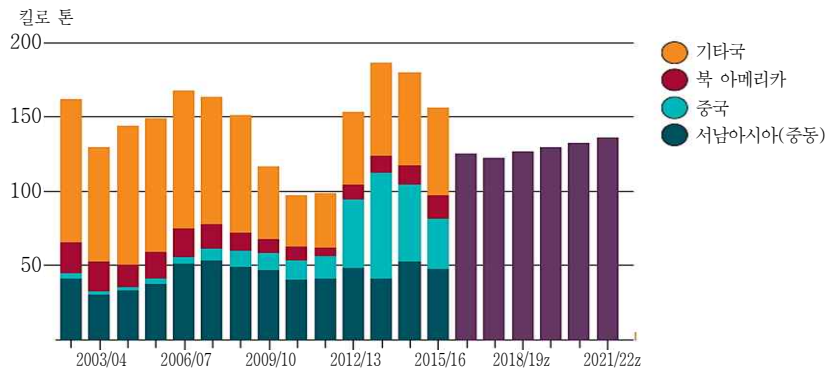
2.3.2. 양고기(mutton)⁴⁾ 수출

2016/17년 호주의 양고기 수출량은 양고기 생산 감소로 2015/16년 대비 20% 감소한 12.5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6년 - 17년 양고기 수출량은 번식 및 사육 규모 회복을 목적으로 암양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3% 더 감소한 12.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양고기 수출량은 2018/19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1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 이 단락의 양고기는 1세 이상의 양고기(mutton)를 의미함.

그림 9. 호주의 양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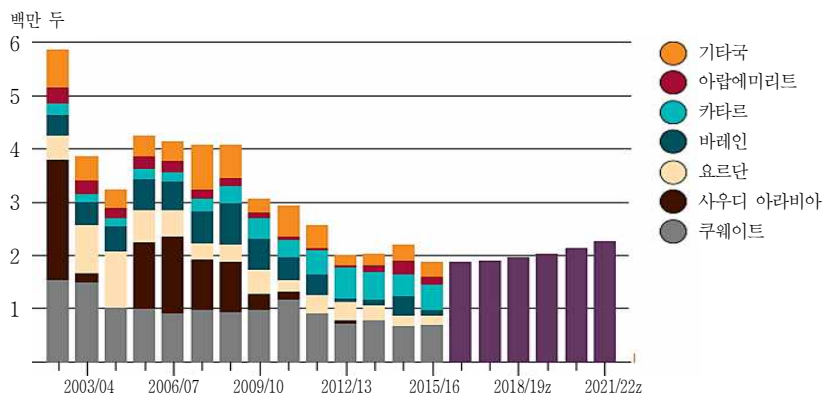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2.3.3. 양(생축) 수출

2016/17년 호주의 양(생축) 수출은 수출용 양의 공급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육가공 업자들과의 공급물량 확보 경쟁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양 수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17/18년 양 수출은 양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0만 마리로,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기적으로 양 수출은

그림 10. 호주의 양(생축)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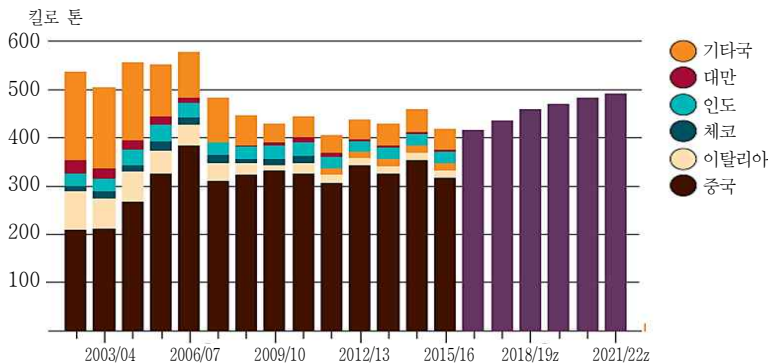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차츰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23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중동지역으로 수출은 이 지역 경제의 점진적인 번영을 반영하여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4. 양모 수출

2016/17년 호주의 양모 수출량은 양모 생산 증가로 2015/16년 대비 2% 늘어난 42.6만 톤으로 전망되며, 수출액은 양모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7/18년 양모 수출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44.2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성장 추세는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의 양모 수출량은 49.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호주의 양모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02/03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표 2. 양고기와 양모 전망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가격									
새끼 양 a									
-명목	센트/kg	518	533	585	600	595	590	580	570
-실질 b	센트/kg	533	540	585	589	570	551	529	507
양 a									
-명목	센트/kg	332	316	380	395	390	385	380	370
-실질 b	센트/kg	341	321	380	388	373	360	346	329

(계속)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EM c									
-명목	센트/kg	1,102	1,253	1,360	1,440	1,435	1,430	1,425	1,420
-실질 b	센트/kg	1,133	1,272	1,360	1,413	1,374	1,336	1,299	1,262
양 사육두수									
총 두수 d	백만 두	71	69	74	77	79	80	82	83
털 깎은 양	백만 두	77	73	75	78	81	84	85	87
두당 산모양	kg	5	4	5	5	5	5	5	5
도축두수									
새끼 양	천 마리	22,867	23,131	22,400	22,623	23,211	23,848	24,564	25,317
양	천 마리	9,022	8,127	6,500	6,500	6,635	6,782	6,933	7,094
생산 e									
새끼양고기	천 톤	507	516	503	507	521	535	552	569
양고기	천 톤	214	196	158	156	159	163	167	171
양모생산									
-털깎기	천 톤	346	325	341	353	367	378	385	392
-기타 g	천 톤	81	79	73	74	76	78	80	83
-계	천 톤	427	404	415	427	443	456	465	474
1인당소비									
새끼양고기	kg	9	9	9	9	9	9	9	9
양고기	kg	1	0	1	1	1	1	1	1
수출									
새끼양고기 수출량h	천 톤	254	261	253	255	262	270	279	289
새끼양고기 수출액									
-명목	백만 호주 달러	1,779	1,771	1,800	1,855	1,890	1,933	1,964	1,997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1,830	1,797	1,800	1,820	1,810	1,806	1,789	1,775
양고기 수출량h	천 톤	180	156	125	122	126	130	132	136
양고기 수출액									
-명목	백만 호주 달러	824	699	613	621	634	643	649	647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848	710	613	610	607	610	592	575
생축 수출량	천 마리	2,180	1,859	1,875	1,900	1,950	2,025	2,125	2,250
양모 수출량	천 톤	459	417	426	442	458	470	482	492
양모 수출액									
-명목 i	백만 호주 달러	3,154	3,283	3,605	3,972	4,106	4,199	4,289	4,349
-실질 b	백만 호주 달러	3,244	3,331	3,605	3,898	3,931	3,922	3,909	3,867

주: a 산지경매가격(지육환산). b 2016/17년 호주달러 기준. c 양모가격(세척양모 환산). d 6월 30일 기준. e 지육중량. f ABARES 전망치. g 양모 있는 양피, 양피에서 제거한 양모, 도축과정에서 제거한 양모 포함. h 선적중량(냉동, 냉장육포함).

i 국제수지기준. z ABARES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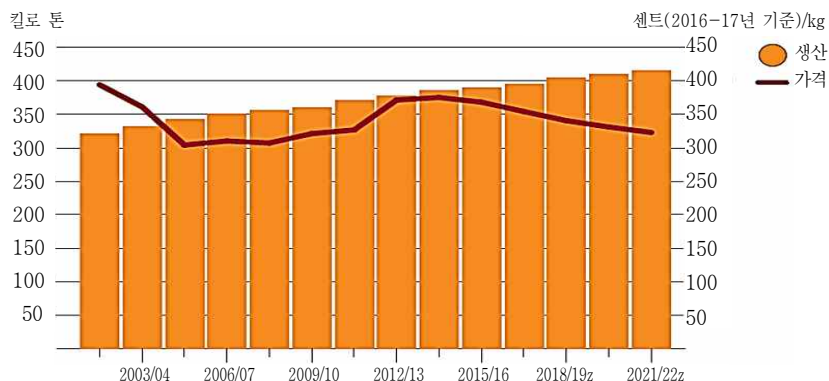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3. 돼지고기 전망

3.1. 가격 전망

2016/17년 호주의 돼지고기 도축장 거래가격(over the hooks price)⁵⁾ 가중 평균은 kg당 370센트로 2015/16년 대비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적색육 가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신선 돼지고기 수요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과 도축장 거래가격(2008/09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중기적 돼지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쇠고기 및 양고기 등 다른 적색육의 공급 증가로 이들 적색육 가격이 하락하여 소매단계에서 적색육 소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주의 돼지고기 가격은 2017/18년 357센트/kg, 2021/22년 320센트/kg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생산 전망

3.2.1. 암태지 사육두수

2016/17년 호주의 암태지 사육두수는 2015/16년 대비 3% 증가한 28.2만 마리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호주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돼지고기에 대한 강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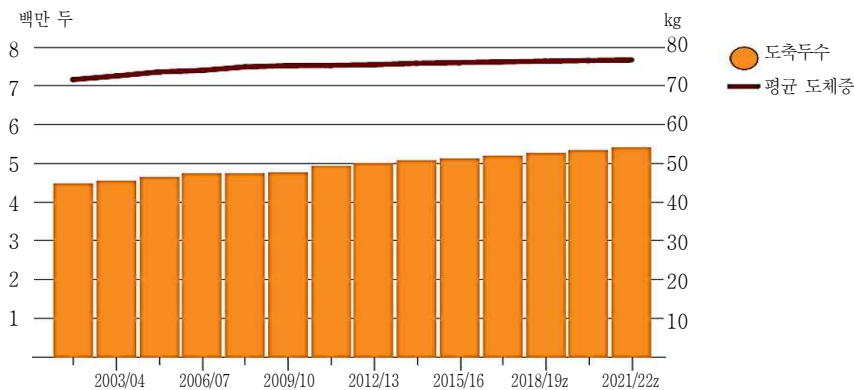
5) 도축장 거래가격은 생축이 도축장으로 직접 운송되고 그곳에서 중량을 측정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함.

중기적으로 호주산 신선 돼지고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이며, 전국적인 사육규모 확대가 점진적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22년 호주의 암돼지 사육두수는 29.4만 마리로 2016/17년 대비 대략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2. 돼지고기 생산

2016/17년 호주 돼지고기 생산량은 39.3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7/18년에는 전년대비 3% 증가한 40.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의 생산량 증가는 주로 도축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료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평균 도체중도 증가하여 생산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호주의 돼지 도축두수 및 평균 도체중(2008/09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중기적으로 돼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사료 가격은 생산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17/18년과 2021/22년 사이에 돼지 도축은 연간 약 1.8%씩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560만 마리의 돼지가 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평균 도체중은 2021/22년 76.8kg으로 2015/16년 보다 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돼지고기 생산은 중기적으로 점차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4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3. 수출입 전망

3.3.1.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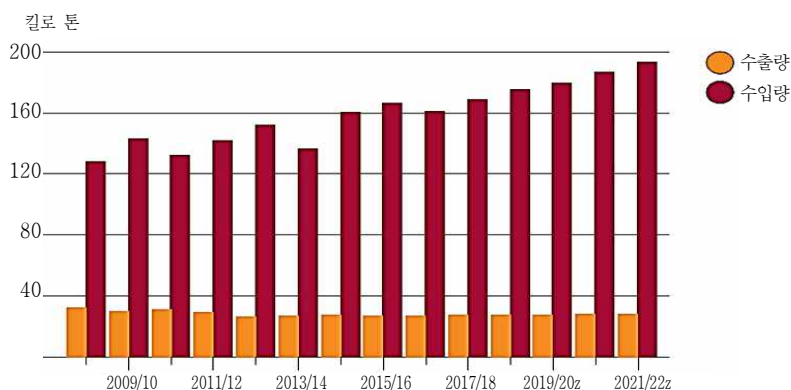
2016/17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액은 1억 3,400만 달러로 2015/16년 대비 5%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평균 수출단가 상승과 수출량 증가(전년대비 0.1만 톤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중기적으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22년에는 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평균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액은 2017/18년 1억 3,300만 달러, 2021/22년 1억 2,100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3.2. 수입⁶⁾

2016/17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선적중량 기준 15.9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 감소는 주요 소매업자들의 보관관리방법 변경으로 수입업체의 냉장 보관 재고물량이 감소될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2017/18년에는 낮은 수준의 기초재고로 수입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고기 수입량은 16.2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낮은 사료 국제가격과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로 돼지고기 수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1/22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8.7만 톤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입 물량(2008/09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6) 호주는 수입 돼지고기의 안전성 문제로 오랫동안 신선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해왔음. 이에 따라 호주에 수입된 돼지고기는 보통 베이컨, 햄 등으로 가공품이 대부분임.

3.4. 소비 전망

2016/17년 호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6.8kg으로 2015/16년 대비 대략 3%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 감소분은 호주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50%를 차지하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18년은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1인당 소비량도 전년대비 1% 가량 증가한 27.0kg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가공된 수입 돼지고기와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돼지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쇠고기 및 양고기와의 적색육 소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점차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1/22년 호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7.8kg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돼지고기 전망

구분	단위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도축장 거래액 ^a									
-명목	호주 센트/kg	317	366	370	364	368	365	361	360
-실질 ^b	호주 센트/kg	327	371	370	357	353	341	329	320
암퇘지 사육두수 ^c	천 마리	270	275	282	287	290	291	293	294
도축두수	천 마리	4924	5000	5150	5300	5430	5510	5570	5620
생산	천 톤	371	378	393	405	415	420	425	430
1인당 소비	1kg	27	28	27	27	27	27	28	28
수입량 ^e	천 톤	160	167	159	162	167	173	180	187
수출량 ^e	천 톤	29	28	29	298	30	30	30	30
수출액									
-명목	백만 달러	110	128	134	136	137	136	135	136
-실질 ^b	백만 달러	114	129	134	133	131	127	123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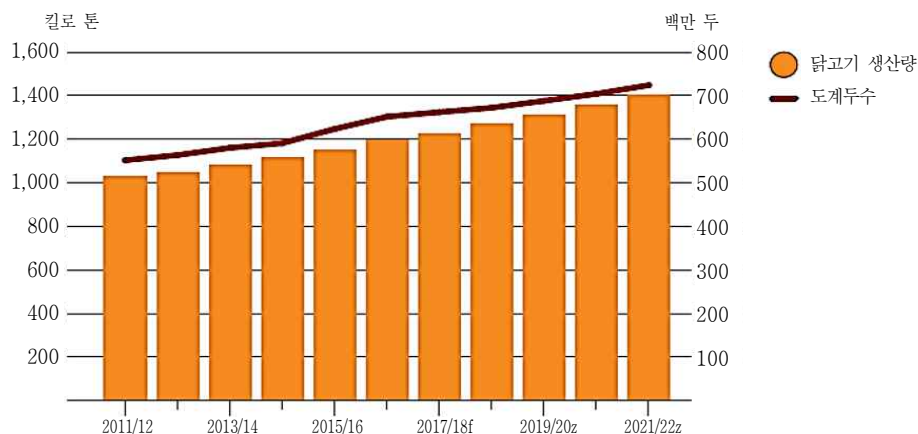
주: a 지육중량. b 2016/2017년 호주달러 기준 c 6월30 기준. d 도체중량. e 선적중량. f 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4. 닭고기 전망

4.1. 생산 전망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0/11년부터 2015/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16년에는 115만 톤에 달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생산량 증가는 주로 국내 닭고기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계를 늘려온 결과이다. 한편, 가금류 도계수수는 2010/11년과 2015/16년 사이 13% 증가하여 6억 2,300만 마리에 이르렀다.

그림 15.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 및 도계수수(2011/12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전망 기간 내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6/17년 120만 톤에서 연평균 3%씩 성장하여 2021/22년에는 1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해 가금류의 도계수수는 7억 2,4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평균 도체중은 1.9kg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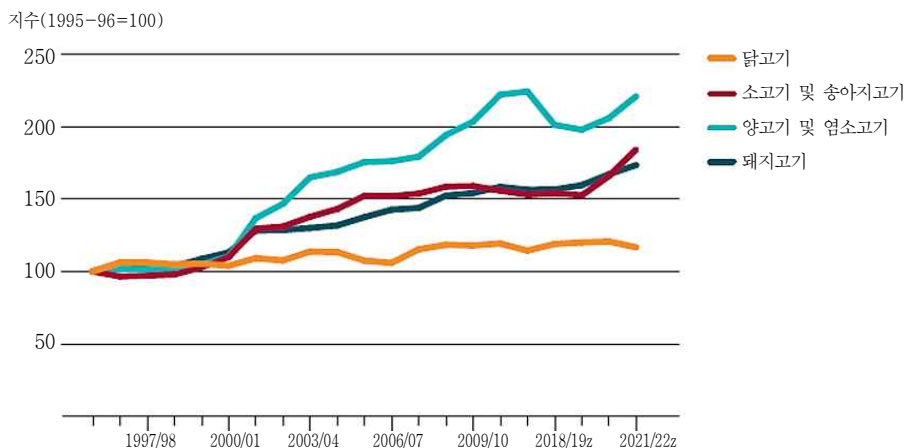
닭고기의 평균 도체중은 2016/17년 1.8kg에서 2021/22년 1.9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수한 품종의 부화용 수정란을 수입함으로써 유전학적으로 품종개량이 이루어졌으며, 선택적 육종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최근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⁷⁾ 또한 사육업자들이 성장률 및 수확량, 사료 요구율(feed conversion rate)⁸⁾,

동물 복지 및 생식적 적합성(reproductive fitness)⁹⁾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4.2. 수요 전망

닭고기 생산량은 호주 내의 닭고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쇠고기, 양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호주의 육류별 소비자 가격지수(1995/96년 ~ 2015/16년)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전망기간 중 호주의 육류 소비 중 닭고기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¹⁰⁾,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15/16년 47.0kg에서 2021/22년 49.6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1/22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5.4kg, 돼지고기는 27.8kg, 양고기는 9.3kg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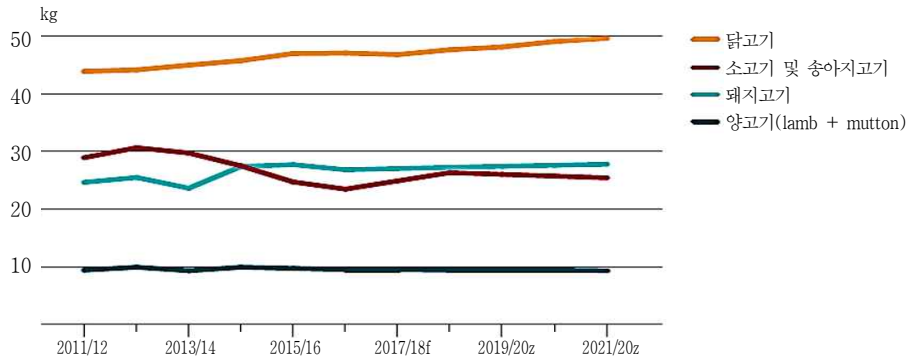
7) 현재 육계는 3.4kg의 사료를 투입하고 대략 35일 동안 사육하여 이상적인 도체중에 도달하지만, 1970년대의 육계는 4.7kg의 사료를 투입하고 대략 64일 동안 사육해야만 이상적인 도체중에 이르렀음.

8) 사료 요구율은 단위 체중 증가에 필요한 사료섭취량을 의미함.

9) 생식적 적합성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성향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10) 닭고기가 전체 축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16년 42%에서 2021/22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7. 호주의 1 인당 육류 소비량(2011/12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4.3. 수출 전망

2016/17년 호주의 닭고기 수출량은 선적중량 기준 3.3만 톤으로 2015/16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7/18년에는 3% 더 증가한 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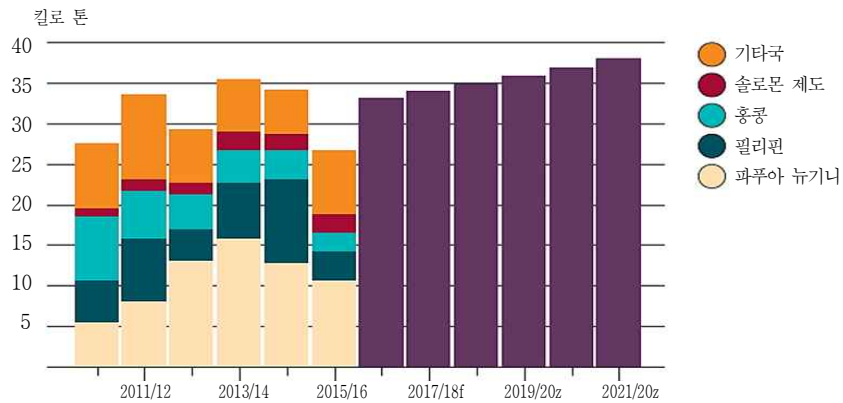
이는 호주산 가금육 제품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를 해제한 파푸아 뉴기니 정부의 2016년 2월 결정에 따라 파푸아 뉴기니¹¹⁾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면서 전체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 호주산 닭고기 수출은 매년 3%씩 증가하여 2021/22년에 이르러 3.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주로 수출용으로 소비되는 냉동 부분육 또는 닭발, 신장, 간 등의 부산물 공급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¹²⁾. 특히, 이들 수출 품목의 수요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파푸아 뉴기니는 2015/16년 호주산 닭고기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출 시장임.

12) 호주의 닭고기 수출은 냉동 부분육 또는 닭발, 신장, 간 등의 부산물이 호주 전체 닭고기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출 품목들이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임.

그림 18. 호주의 닭고기 주요수출국별 수출량(2011/12년 ~ 2021/22년)



주: f-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표 4. 닭고기 전망

		2014/15	2015/16	2016/17f	2017/18f	2018/19z	2019/20z	2020/21z	2021/22z
생산 a	천 톤	1,116	1,150	1,196	1,228	1,273	1,310	1,360	1,401
1인당소비	kg	46	47	47	47	48	48	49	50
도축두수	백만 마리	591	623	652	664	672	688	704	724
수출량 b	천 톤	34	27	33	34	35	36	37	38
수출액									
-명목	백만 달러	54	47	48	49	53	54	56	57
-실질 b	백만 달러	55	48	48	48	50	51	51	51

주: a 도체중 기준, b 선적중량 기준, c 2016/17 달러 기준, f ABARES 전망치, z ABARES 추정치.
자료: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2017).

참고문헌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ABARES). 2017.
Agricultural commodities: Livestock. ABARES.